

시속 320km '꿈의 레이스' 질주만 남았다

경주장 서킷 28일 최종검수 대회 3일간 23만명 몰릴 듯 전국 곳곳 홍보전 열기 고조

한국에서의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질주가 시작됐다. 그 무대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와 난전리 일대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경주장)이다.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전 세계 6억명이 시청하는 F1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지역민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대회 개최(10월 22~24일) 한달여를 앞두고 코리아그랑프리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코리아그랑프리는 올해 열리는 F1의 19개 대회(라운드) 가운데 17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우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구촌 F1 마니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코리아 서킷에 대한 테스트는 지난 4~5일 대규모로 열린 '서킷런' 행사를 통해 마쳤다. 서킷 표출 포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됐지만 을 시즌 F1 월드 챔피언십 팀 득점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카론 잔프외인 십 팀 주력으로 서킷의 성능을 검증했다. 28일로 예정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경주장에 대한 최종 검수를 통과하면 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F1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남도, 대회 운영법인인 'KAVO'는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F1대회 조직위는 대회가 열리는 3일 동안 총 23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6만5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결승전 당일에는 12만4000여명의 관람객에 3만1000여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중교통 이용, 환승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숙박대책도 마련했다. 광주·전남지역에 8만명이 수용 가능한 3만8870실을 확보했고 F1호텔과 F1레스토랑 256곳을 지정해 표준화 된 숙박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오토 캠핑장과 텐트촌, 한옥빌리지, 홈스테이 등 남도 체험형 숙박시설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서히 달아 오르기 시작한 F1 붐을 성공 개최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도 준비했다. 18일 시작돼 21일까지 계속되는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은 F1 붐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서울 용산역과 강남역 미널, 용인(영동고속도로)·망향(경부고속도로)·군산(서해안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린



하늘에서 내려다 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총 공정률 95%로 이달 말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한달후면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제전인 F1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영암에서 열린다.

홍보전은 다양한 게임방식의 이벤트를 통해 F1 티켓을 상품으로 제공하면서 귀성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다음달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데모런'이 수도권 붐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르노삼성팀의 드라이버 2명의 F1 머신 시범 주행을 선보인다. 전남도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서울 하이페스티벌에도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코리아그랑프리의 열기는 대회 직전부터 결승전 당일 까지 열리는 'F1 워크(주간)'때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목포 하담 신도심과 영암 서킷 일원에서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F1 워크는 슈퍼카 전시, 카트레이싱 체험, 드리프트 시범 등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와 거리 문화공연으로 관람객들과 지역민들을 F1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회후에는 한국과 전남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F1 규칙 만큼이나 복잡한 관람권

12만원서 101만원까지 가격 천차만별 코너링 묘미 감상하려면 E~G석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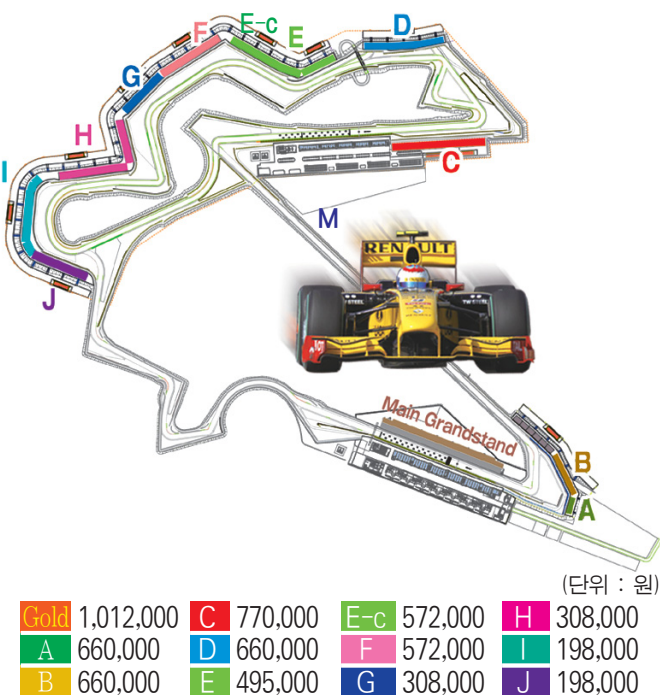
F1 관람권은 F1 규칙 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관람권을 이해하려면 우선 대회 3일동안의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대회 첫날에는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연습주행만 있다. 둘째날에는 예선전 출전 자격을 주는 연습주행이 오전에 열리고 오후 2시부터 예선전이 치러진다. 마지막 날에는 오후 3시에 결승전이 열린다.

따라서 관람권도 3일동안 모든 경기를 볼수 있는 '전일권'과 '토요일권'(예선전), '일요일권'(결승전)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연습주행이 열리는 금요일권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전일권을 가진 사람이 관람할 수 있다.

영암의 코리아서킷은 총 관람석이 12만석으로, 이 가운데 1만6000석이 메인 그랜드스탠드이고 나머지는 가설 스탠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좌석은 A~M까지 총 20종류 11등급의 가격대로 형성돼 있다. 예선전 그랜드스탠드 I~J 좌석이 12만8700원으로 가장 싸고 메인 그랜드스탠드 골드의 종일권은 101만2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인터파크 등 티켓 발매처에서는 7%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티켓 가격은 좌석별 특징에 따라 매겨진다. 최고가인 메인 그랜드스탠드 골드는 머신들의 스타트와 피니쉬의 감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흥미로운 볼거리인 '피트스탑'(머신 정비소)도 눈앞



에서 펼쳐지고 개막식 등 각종 이벤트도 이 좌석 주변에서 치러진다. 그랜드스탠드 A·B석은 추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만큼 다이나믹한 머신들의 격돌을 지켜볼 수 있다. 충격적인 사고 장면을 목격할 가능성도 높다. 그랜드스탠드 D석은 중저속 코너에 있어 역동적인 코너 탈출의 묘미를 선사하는 곳이다. 고속 코너링의 묘미를 감상하려면 E~G석을 선택하면 된다. 지형 여건상 경기장에서 머신의 굉음을 가장

자극적으로 들을 수 있고 머신의 성능 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의 기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최근 신설된 M석은 1.2km의 직선코스에서 시속 320km로 질주하는 머신을 마주할 수 있다. F1대회 조직위원회 박봉수 팀장은 "입장권 구매시 관람 구역과 개별 좌석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지정좌석제'를 도입한만큼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즐거움 한가위

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온가족 함께 모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p>최광림 성형외과 ☎ 226-8575 밀리오레 건너편 버스정류장앞 3층</p> <p>SM 美 성형외과 ☎ 376-4114 서구 치평동 상무타워 2층</p> <p>김영길 성형외과 ☎ 227-3777 무등극장앞</p> <p>신세계 성형외과 ☎ 351-1114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밝은안과 건물 3층</p> <p>최석현 성형외과 ☎ 224-9900 임동 전남방직정문 옆</p> <p>압구정 앤 성형외과 ☎ 383-7185~7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옆 동양빌딩 6층</p> <p>조백현 성형외과 ☎ 226-6200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경남빌딩 2층</p>	<p>J 조 안 성형외과 ☎ 225-0119 금남로3가 가톨릭센터 2층</p> <p>권대승 성형외과 ☎ 224-6663 중파 맞은편 3층</p> <p>메카 성형외과 ☎ 232-3600 전대병원 응급실 맞은편</p> <p>오형근 성형외과 ☎ 366-0003 신세계백화점 정문 건너편</p> <p>메디필 성형외과 ☎ 352-5252 농성동 신세계건너편 메디센터 2층</p> <p>미플러스 성형외과 ☎ 363-0075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새일병원 옆</p> <p>샤인성형외과의원 ☎ 261-3050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동강BD 6층</p>	<p>프렌즈성형외과 ☎ 366-7890,689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밝은안과 21 건물 7F</p> <p>김환익 성형외과 ☎ 225-9777 밀리오레건너편, 광주은행 3층</p> <p>bella 벨 라 성형외과 ☎ 224-7300 남동 성당옆 웰크리너 3층</p> <p>박동균 성형외과 ☎ 236-3300 신세계이마트 건너편 다나메디칼B/D 5층</p> <p>교 토 성형외과 ☎ 223-7000 무등빌딩(구 삼복서점) 옆</p> <p>류봉수 성형외과 ☎ 234-0009 충장로 1가 입구 광일빌딩 옆</p> <p>신지호 성형외과 ☎ 222-0222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p>
---	---	---